

#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비판적 재현

## - 마일스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을 중심으로 -

이 채 영 · 신 혜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수료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 요 약

현대 사회 전반에 걸쳐 19세기의 정형화된 남성다움 혹은 여성다움이라는 고정관념적 젠더 이미지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다원화된 젠더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됨으로 인해 고착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가 다수 차용되던 패션 사진에서도 여성 이미지 재현에 있어 비판적인 시각을 접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패션 사진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일스 알드리지(Miles Aldridge) 패션 사진 속에 표현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재현 행태를 파악하고, 비판적 재현 표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션 사진을 유형화 하여 분석하기 위해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연구 젠더 애드버타이즈먼트(gender advertisements) 및 후속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알드리지는 미인대회, 가사노동과 같은 주제를 비롯하여, 페티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소품 사용 등을 통해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었지만, 여성과 색채의 이중적 표현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알드리지가 창조해 내고 있는 여성들은 단순히 고정관념화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공허한 표정과 창백한 피부 표현을 통해 인공적이고 모순된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이를 통해 작가의 자의식적인 인공성을 여성 모델을 통해 연출하여 불편하고 왜곡된 느낌을 전달하고, 환경, 소품 등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강렬한 색상대비와 명도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초현실주의적인 레드, 옐로우, 그린 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강렬하고 인공적인 빛과 색채의 사용은 고정관념적 이미지와의 부조화를 극대화 하였다. 즉, 현실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색채와 인공조명이라는 허구를 혼합하여 실재와 인공성이 공존하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었다.

주제어 : 고정관념, 여성 이미지, 마일스 알드리지, 패션 사진, 비판적 재현

## I. 서론

현대 패션 사진은 유행을 이미지화 시켜주는 작업을 통해 상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를 가진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에 들어 광고 패션 사진뿐만 아니라,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editorial fashion photographs*)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더욱 차별화되고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 졌다.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연속적 이미지로, 다양하고 복합적 층위를 가진 메시지들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용 패션 잡지는 주요 수용자가 여성이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여성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 재생산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패션 사진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고착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재현하거나 반영한 패션 사진들이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패션 사진들에서 재현되는 여성의 이미지는 대체로 대상화된 여성, 남성의 판타지 속 여성, 물신화된 여성 등 고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와 여성 이미지에 대한 논의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 예술에서는 여성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과거와 다른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형식적 시도뿐 아니라, 의미 차원에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재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패션 사진에 있어서도 상업적 목적을 떠난 단순한 재현을 거부하고, 패션 사진가 개인의 비판적 시각이나 의미를 담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의 패션 사진작가들은 그들의 시각과 의미를 부여하는 패션 사진을 탄생시키면서 예술가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으며, 따라서 패션 사진도 예술

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패션 사진에도 과거보다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성 이미지의 재현 방식에 있어서도 주류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 사진에서 묘사되는 성역할,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피상적으로 드러난 직업, 연령, 배경 혹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는 (남경태, 2004<sup>1)</sup>; 백선기, 박지아, 2009<sup>2)</sup>; 최경희, 2008<sup>3)</sup>가 있으며, 해외 선행연구에서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1979)<sup>4)</sup>은 젠더 애드버타이즈먼트(*gender advertisements*) 연구를 통해 모델의 손, 제스처 또는 표정 등을 통해 성별로 정형화된 이미지를 밝혀내고 있었다. 고프만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 (Kang Mee Eun, 1997<sup>5)</sup>; Katharina Lindner, 2004<sup>6)</sup>)가 두 편 있다. 이 외에 패션 잡지 및 사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스토리텔링의 내용과 형식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 패션 사진은 문화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진작가의 의도를 통해 내재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매체로 변화한 반면, 여성이 중심 모델인 패션 사진에 있어 어떤 재현 방식이나 도구적 효과를 기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920년대 만 레이(*Man Ray*)는 여성 모델을 마네킹과 같은 이미지로 촬영하여 간혹 페미니스트 비평가로부터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했다는 비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헬무트 뉴튼(*Helmut Newton*)은 여성의 종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성 모델의 포즈를 마네킹과 같이 부동으로 고정시키기도 하였다.<sup>7)</sup> 하지만 패션 사진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형적 재현 방식이 아닌 독특한 차별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마일스 알드리지(Miles Aldridge)는 자신의 실제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여성에 대한 시각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시각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여성과 색채라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상투적인 재현 방식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여성 이미지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독특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가 재현되는 방식 및 시각적 표현 요소들을 분석하여,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의 행태와 시각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현대 패션 사진은 작가들이 대상에 접근하는 고유한 시각과 해석,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신선한 아이디어로 상업성을 넘어 문화를 담아내는 작품으로까지 인정받고 있다.<sup>8)</sup> 따라서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나는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의 새로운 시도 및 표현방식을 파악하고 내재된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이미지 형성 및 정형화 배경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대 시각예술에서 보이는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과 비판적 표현방식을 살펴본다.

둘째, 고프만의 젠더 표현 유형화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과 표현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을 분석하고,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에 나타난 시각적 구성요소 및 표현 특성을 살펴 내재적 의미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

미지 표현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으로 패션 사진작가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으로 한정하였다. 『Vogue』 편집장 가티 패트리시아(Gatti Patrizia)는 알드리지의 작품 속 여성은 사회적 응시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인간 내면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환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sup>9)</sup> 또한 알드리지는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그의 작품들은 본인의 가족, 즉 실제 경험에서 얻은 이념이나 영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sup>10)</sup> 즉, 여성 이미지 표현에 있어 그만의 독특한 시각이 반영되고, 이는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알드리지의 여성에 대한 관심이 패션 사진에 반영되어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하고 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션 사진을 유형화 하여 분석하기 위해 고프만의 연구 젠더 애드버타이즈먼트 및 후속 연구(Kang Mee Eun, 1997<sup>11)</sup>; Katharina Lindner, 2004<sup>12)</sup>에서 제시한 코딩 유형을 사용하였다. 고프만이 제시한 가족 범주는 스틸 사진 속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배치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관계인데, 후속 연구의 경우 가족이란 범주를 제외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가족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정된 성역할을 읽어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소, 즉 가사노동을 연상시키는 환경을 포함한 유형을 기반으로 분류하였다.

트렁크 아카이브(Trunk archive)<sup>13)</sup>에서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을 검색한 결과, 총 182 시리즈의 1455장의 패션 사진이 검색 되었다. 이중 2000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 광고용 사진, 그리고 여성의 성역할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나 성역할 표상이 발견될 소지가 없는 시리즈 들은 제외하였다. 분석 표본 선정에 있어서는 에디토리얼의 제목, 작가나 잡지사의 리뷰, 사진의 테마와 모델, 소품 등을 분석하여, 여성의 고정관념적 성역할이나 이미지를 보여주는 20시리즈 160장으로

압축하였고, 해당 사진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는 <표 1>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20시리즈의 표본은 본 연구 주제에 익숙한 석사 이상의 전문가 5명의 피드백과 저자의 연구 설명에 이은

토의를 거쳐 다시 한 번 분석 방법과 결과에 대한 숙고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프만의 코딩 유형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총 5개의 유형을 최종 표본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유형별 표상 및 알드리지 패션 사진 1차 선별 표본에 나타난 여성

코딩 유형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표상	알드리지 패션사진 1차 선별 표본에 나타난 여성
상대적 크기 (relative size)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남성을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하여 화면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의 남성들 속에 배치된 한명의 여성, 남성 뒤쪽으로 배치되어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된 여성</li> </ul>
기능적 역할 (function role)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존재할 때, 남성의 역할이 여성을 가르치는 역할이나 상대적으로 전문가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육아하는 여성의 모습</li> <li>• 남성은 학사모를 쓰고 큰 테이블에 앉아있고, 대조적으로 서서 아이의 손을 잡은 여성</li> </ul>
여성적 터치 (feminine touch)	여성이 자신의 몸이나 옷가지를 터치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등 손가락을 이용한 섬세한 표현이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신 중심으로 손으로 턱, 뺨, 목, 가슴 등을 부드럽게 감싸 쥐는 여성</li> </ul>
종속의 의례화 (ritualization of subordination)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바닥, 침대, 소파 등에 기대어 있거나 남성 종속의 대상으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흐트러져 쓰러지며 남성에게 부축 받거나, 남성에게 팔짱을 끼거나 기대 누운 여성</li> <li>• <b>나체로 소파, 의자에 기대 눕거나, 남성에게 술을 받는 여성</b></li> <li>• 남자의 손에 제압된 여성의 목, 다리, 엉덩이가 강조된 표현</li> </ul>
승인된 후퇴 (licensed withdrawal)	여성의 모습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웅크리고 좌절한 모습 등 상대자에게 의존해야 하고 보호받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에 기대 상체를 내거나, 침대에 힘없이 머리를 흐트러진 채 쓰러져 있는 여성</li> <li>• 나체로 쓰러져 부축을 받거나, 눈에 초점이 없이 바닥에 쓰러진 여성</li> </ul>
몸의 표상 (body display)	여성이 속이 비치는 의상을 착용하거나 거의 입지 않은 모습, 혹은 누드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나체로 악기를 연주하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한 여성</li> <li>• 엉덩이, 음모만 드러난 옷을 입고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여성</li> <li>• <b>가터벨트를 착용한 여성의 다리가 침대 및 소파와 혼합되어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표현</b></li> </ul>
움직임 (movement)	여성이 신체를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갇히거나 붙잡혀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마네킹으로 표현되어 움직임이 제한된 여성</b></li> <li>• 바비 인형으로 표현되어 움직임이 제한된 여성</li> <li>• 철조망 뒤에 갇혀 움직임이 제한된 여성</li> </ul>
장소 (location)	여성이 부엌, 침실, 욕실과 같이 가정환경 배경 중심으로 표현되거나 가사노동을 연상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그릇을 씻는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b></li> <li>• 청소, 세탁 등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li> <li>•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다리미질과 같은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li> </ul>
대상화 (objectification)	여성의 중심 역할이 남성 또는 특정 대상에게 보이는 역할로 표현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형수술을 하는 여성</li> <li>• <b>미인대회에 출전하여 눈물을 흘리는 여성</b></li> </ul>

(\* 최종 선정 표본은 볼드체로 표기)

사진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시각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나 상징성의 형상이 다양한 해석 또는 변용될 수 있으므로, 패션 사진을 코드와 기호의 형식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성근(1995)<sup>14</sup>이 정립한 사진의 시각적 표현 요소인 주제와 콘셉트, 모델과 인체 표현, 구도와 앵글, 조명과 색채, 그리고 패션 사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복과 소품을 추가한 이채영, 하지수(2014)<sup>15</sup>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색채분석의 경우 한국표준색 색채분석 KS CA(Korea Standard Color Analysi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III. 이론적 배경

#### 1. 현대사회의 성 고정관념

성 고정관념은 보편적인 성향을 기대하며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된 성격으로 사회가 생각하는 고정화된 성 역할 관념이다. 즉, 사회·문화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가치관과 성격, 행동 등을 규정짓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성에 대한 관념은 다양한 매체에 의해 재현되거나 재해석되어 표현되고 있고, 이는 성에 대한 모습을 고정관념화 하거나 변질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은 과거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본다.<sup>16</sup> 이 시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특히 여성은 가사노동, 임신 및 출산, 육아 등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매우 억압받는 존재였으며 동시에 비현실적으로 이상화 되었다. 이러한 성 고정관념이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보편화되고 정당화되면서 하나의 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문화가 갖는 특징은 사회 구성원들이 주어진 기존의 문화 유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sup>17</sup> 이처럼 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내용을 수용하고 대부분의 관행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현대의 성 고정관념은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결정이 아닌 과거에 정형화된 여성성, 여성다움이라는 이미지가 보편화되고 현재까지 잔재하여 사회·문화 내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성역할 및 여성 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경제 성장 및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즉,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단정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 2. 현대 시각예술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선

문화·예술 전반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다. 예술작품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작가 개인이 살아온 시대나 사회·문화에 바탕을 둔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그들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된 도상을 통해 관조자와 소통하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예술작품은 단순히 조형적으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의지가 담긴 창조물로 내재된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선행 연구 및 예술가의 시각을 도출할 수 있는 인터뷰 기사를 기반으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가 나타난 예술작품을 분석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은 198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미국의 구성 사진작가로 ‘여성’과 ‘몸’이라는 오브제를 바탕으로 사회가 규정해 놓은 여성상을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셔먼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 예술 사진작가이



<그림 1> 『Untitled Film Still』, 1977  
(출처: <http://pinterest.com/pin/363736107374470826>)



<그림 2> 『Self Portrait』, 1989  
(출처: <http://pinterest.com/pin/513691901222547689>)



<그림 3> 『The Visitors』, 1964  
(출처: <http://pinterest.com/pin/453667362435937688>)



<그림 4> 『Hours』, 2014  
(출처: <http://www.fast-management.com/?cat=13&paged=2>)

다. 여성과 복식을 비롯한 패션 관련 요소를 자신의 작품에 차용하여, 패션 사진을 자신 작품의 일부분으로 수용한 특성을 보여준다.<sup>19)</sup>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여성들이 어떻게 묘사되며 인식되고 있는지를 표현한 작품 『Untitled film still』 시리즈 <그림 1>은 작가 스스로 소피아 로렌(Sophia Loren),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와 같이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으로 분장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시각을 재현하였다. 또한 대중매체가 만들어 내는 건달의 정부 혹은 머리가 텅 빈 금발 미인과 같은 여성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시켜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2>는 1983~84년에 촬영한 『Self Portrait』로 패션 사진 모델을 패러디하여 아름다운 여성이 아닌 추하고 비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비판적 시각을 내재함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sup>20)</sup>

조각가 마리솔 에스코바(Marisol Escobar)의 작품에서도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비판적 시각을 담아 표현한 예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은 <그림 3> 『The Visitors』로, 심정은(2005)<sup>21)</sup>은 “에

스코바는 오늘날 여성의 비인간화된 모습을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껏 조각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재료와 방법으로 차갑게 풍자하였다”고 하였다. 에스코바의 작품에서 보이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나무토막에 새겨진 갖가지 여인의 얼굴은 획일화된 여성성에 자아를 잃어버리고 소외된 여성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나무를 사용하여 하나의 몸체를 기본형으로 하나처럼 구성되어 있고, 이는 현대 사회 속에서 소외된 여성의 비개성화, 비인간화, 비감성화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다.<sup>22)</sup> <그림 4>는 중국 『Haper's Bazar』 중국판 2014년 10월호에서 사진작가 존 폴 피에트러스(John-Paul Pietrus)가 에스코바의 작품을 모티브로 한 패션 사진이다.

호주의 비주얼 아티스트 제시카 레드윅(Jessica Ledwich)은 현대 여성의 모습을 기괴하게 표현한 『Monstrous Feminine』이란 사진 작품을 선보였고,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 기사들에 의해 극찬을 받은바 있다. 레드윅의 작품은 현대 인간의 모습을 거울로 비추듯 그



<그림 5> 『Monstrous Feminine』, 2014  
(출처: <http://www.jessicaedwich.com/monstrous-feminine.html>)

대로 반영하고 강렬한 심리적 시각 공간을 마련한다.<sup>23)</sup> 레드윅(2014)<sup>24)</sup>은 인터뷰를 통해 “현대의 여성은 조금은 무섭고 불편한 형태로 보이며, 특히 현대의 여성의 미와 관련된 기대는 비이상적으로 불편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현대에 대세인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였다. 레드윅은 <그림 5>에서 보이는 것처럼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는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허리를 조이는 압박스타킹과 보정 속옷을 착용한 형태로 표현하거나, 샤넬(Channel) 브랜드 로고가 박힌 관에 갇혀진 여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금발머리의 여성의 뒷모습은 소위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완벽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거울 속에 비춰지는 실제의 모습이 기괴한 얼굴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레드윅은 현대 여성의 비이상적인 미 추구 인식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표현하였다.

### 3.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 1) 현대 패션 사진

패션 사진의 이미지는 패션문화의 광범위한 범주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패션 사진은 패션 시스템과 관련된 문화적 전반의 이해를 돕고, 산업광고를 통해 패션산업의 트렌드와 이미지를 예고하는 도구로서의 사용 등 궁극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sup>25)</sup> 패션 사진 기술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고, 더불어 갤러리와 박물관, 옥션하우스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대의 패션 사진은 과거 고감도 필름과 장치 발달의 미흡함으로 인한 정적 포트레이트(portrait)위주의 사진에서 벗어나,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를 도모하였고, 이상적 미에 대한 도발, 정치적, 미적 도발 등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기도 하였다.<sup>26)</sup>

패션 사진은 크게 에드버타이징 패션 사진과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에드버타이징 사진은 상품의 특성과 콘셉트를 정확히 영상화시켜, 제품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sup>27)</sup> 이에 반해 에디토리얼은 일반적으로 의복의 착장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다양한 표현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 패션 사진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진작가의 의도를 반영하고 새로운 의미 전달이 발현될 수 있는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잡지의 스타일과 견해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그 속에 여성은 매력적이어야 하며 의복을 드러내야 한다는 상업적 목적의 제한이 따른다. 즉, 서면이 패션 사진을 콘셉트로 차용함에 있어, 제약 없이 작가 고유의 의도를 순수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알드리지(2013)<sup>28)</sup>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현대의 패션 사진을 흥미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델들의 선정, 장소의 선택, 분위기를 연출하는 전체 촬영에 있어서 많은 자유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9)</sup>

따라서 현대 패션 사진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작가 고유의 독특하고 감각적인 표현이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독자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현대 패션 사진은 예술 장르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각 예술 분야로 인정받고, 그 역할과 의미가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20세기에는 대중매체에서 여성에 부여해온 상징적 의미들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제도적으로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했다.<sup>30)</sup> 이에 고프만은 잡지에 나타난 여성 모델의 손이나 제스처 또는 역할, 표정 등을 통해 성별로 고착화된 이미지를 밝히고 유형화하였다. 고프만(1979)<sup>31)</sup>에 따르면 사회 속에서 감정적 동기를 가진 인간의 행동은 정형화되고, 이러한 정형성은 상황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신호가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2000년대 이후 패션 사진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고프만이 분류한 유형과 설명된 행동양식을 기반으로 사진을 분류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 패션 사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상대적 크기

본 유형은 화면 구성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존재할 경우, 남성을 여성보다 크게 표현하거나, 화면 구성상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으로써, 여성의 신체적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스티븐 마이젤(Steven Meisel)의 사진 <그림 6>에서 주목해 볼 점은 남성과 여성의 크기 차이, 화면 구성에 있어서의 배치이다. 여성은 화면 뒤에 위치하고 앞에 남성을 배치하여 화면구성상 뒤에 위치한 여성의 크기는 비교적 작게 표현되었다. 이처럼 본 유형은 키 차이나 남성을 비교적 크게 보여주는 위치 선정, 여성의 신체가 제한된 화면구성 등으로 표현

된다. 하지만 현대 패션 사진은 화면을 구성하는 스토리나 콘셉트를 함께 고려해야 해석해야 하며, 단지 작게 표현된 형태만으로 여성의 이미지를 단정 짓는다고 보기 힘들다.

### (2) 기능적 역할

본 유형은 화면구성에 있어 여성과 남성 모델이 있을 때 남성성, 여성성을 대표하는 역할 및 직업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이 정형화된 것을 의미한다. 고프만은 본 유형을 남성 의사와 여성 간호사, 남성 선생님과 여성 제자와 같은 특정 직업에 빗대어 보기도 하며, 여성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것을 남성으로 표현한 사진을 예로 들고 있다. 마이젤의 <그림 7>에서 의사는 남성, 간호사는 여성으로 표현되는 점이 고정관념적 성역할의 이상을 그대로 표현한 본 유형의 예로 볼 수 있다.

### (3) 여성적 터치

본 유형은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게 나타난 여성의 손의 형태나 손동작이 나타난 사진, 특정 오브젝트나 그들의 얼굴이나 몸을 터치하는 순간을 포착한 표현한 유형이다. 특히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남성적 터치와는 대조되는 형태로 표현된 것을 정형화된 여성 이미지 유형으로 보고 있다. 팀 워커(Tim Walker)의 <그림 8>은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터치함에 있어 부드러운 손동작과 섬세한 손가락의 사용이 눈에 띈다. 여성을 가볍고 부드럽게 표현함에 있어, 밝은 색상의 옷과, 날개를 연상하게 하는 반투명한 소재로 여성의 몸을 장식하고 있으며 밝은 톤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손으로 살짝 얼굴을 터치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는 형태의 소위 여성적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4) 종속의 의례화

본 유형은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위치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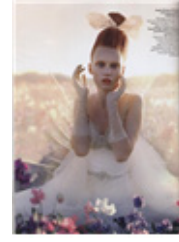




<그림 6> 『In grande stile』, 2010  
(출처: <http://pinterest.com/pin/139893132145230130>)



<그림 7> 『Makeover Madness』, 2010  
(출처: <http://searchingforstyle.com/2010/04/pretty-pictures-makeover-madness>)



<그림 8> 『Tales of the Unexpected』, 2008  
(출처: <http://pinterest.com/pin/56224695323877414>)

하거나, 비교적 허약한 존재로 남성의 종속의 대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본 유형은 여성이 소파나 침대, 바닥에 기대거나 누워있는 포즈를 포함하며, 세부적으로 놀라거나 손을 물어뜯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마이켈의 <그림 9>에서는 경찰에 의해 제압되는 여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성이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과격하게 바닥에 눕혀져 제압되고 있다. 본 시리즈에서는 몸수색이라는 명목 하에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보여주기도 하며, 남성에 의해 여성이 쉽게 제압될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다.

##### (5) 승인된 후퇴

고프만은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경우로 표현되거나 심리적 불안한 모습으로 보호와 호의에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즉 본 유형은 사진 속 여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 움크려 좌절하는 모습, 손으로 가린 얼굴의 두려운 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더불어 불안한 모습의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심리적 의존성을 보여주는 형태를 의미한다. 위커의 <그림 10>에서도 여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으며 카메라는 의도적으로 흔들린 초점으로 촬영하여 정신적 불안을 연상시키는 화면구성을 채택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극대화하였다.

##### (6) 몸의 표상

본 유형은 여성 모델이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세미누드 혹은 누드로 표현된 사진들로, 여성의 몸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여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누드 표현으로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였다고 정의 할 수는 없지만, 주제, 화면 구성, 모델의 포즈, 소품 등을 분석해 볼 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포즈나, 남성 모델과의 화면 구성을 통해 성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기도 한다. 마이켈의 패션 사진 <그림 11>은 여성이 옷을 탈의하고 욕조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였고, 여성의 시선처리, 욕조와 비누 등의 소품을 통해 남성의 성적 대상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7) 움직임

본 유형은 여성이 움직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표현한 사진, 즉 갇히거나 잡혀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몸을 가누에 있어서 한계가 표현된 것이다.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여성의 모습을 담아 사회 문화적으로 제한된 역할, 제약이 많은 고된 여성 이미지를 포함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커의 <그림 12>에서 여성은 인어공주를 연상시키는 분장을 하고 좁은 어항에 갇혀버린 형태로 표현되었다. 여성의 움직임



<그림 9> 『State of Emergency』, 2006  
(출처: <http://www.stylenoir.com/steven-meisel-state-of-emergency>)



<그림 10> 『Dreaming of another world』, 2011  
(출처: <http://pinterest.com/pin/304837468499710018>)



<그림 11> 『Luxury』, 2014  
(출처: <http://www.schutz.com.br/blog/viagens-e-hotspots/gisele-bundchen>)



<그림 12> 『Far, Far from Land』, 2013  
(출처: <http://pinterest.com/pin/503981014526155231>)



<그림 13> 『BBQ Chic』, 2013  
(출처: <http://pinterest.com/pin/459789443177364008>)



<그림 14> 『His kind of Woman』, 2004  
(출처: <http://pinterest.com/pin/478155685414748972>)

은 자유롭지 못하고 갇혀져 괴로워하는 표정을 그대로 노출하여 촬영하였고, 빠져나가고자 몸부림치는 포즈로 움직임의 제약이 시각화되어 연출되었다.

#### (8) 장소

본 유형은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올리는 행위를 하거나 가사노동 환경을 연출한 유형을 의미한다. 현대에는 가사노동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역할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가정 주부가 담당하는 노동은 하나의 업무가 아닌 여성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목표로 이상화 되어왔다.<sup>32)</sup> 이러한 가사노동, 육아와 같은 이미지가 여성이 갖추어야 할 이미지로 각인 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도 강박적으로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표현하고 있다. 알드리지의 <그림 13>은 여성이 그릴을 굽는 장면으로 한 손으로는 요리, 다른 한 손은 아이를 안고 있으며, 여성은 바비 인형처럼

하얀 피부와 금발머리 핑크색 비키니를 착용하여 정형화된 여성의 역할과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9) 대상화

본 유형의 사진은 여성이 응시의 대상 즉,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마이젤의 <그림 14>속 여성들은 만나체의 형태로 다리를 벌이거나 소파에 누워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화면 중심에 위치한 남성은 뒷모습만을 노출하고 여성들을 바라보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더불어 만나체 여성들의 포즈는 성적인 도발을 연상시키고, 남성의 시선의 방향을 통해 여성이 보이는 대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대상화된 표현 방식은 여전히 남성의 판타지속의 여성, 대상화된 여성 이미지를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현대 패션 사진에서 다루는 여성 이미지는 다소 개선되었지만, 고프만

이 유형화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는 여전히 차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은 다양해지고 각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사진의 시각적 효과 즉, 색채, 빛, 의복, 소품, 배경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다채롭게 활용하여 왜곡, 과장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하나의 유형이 아닌 복합적으로 차용하여 작가의 시각을 극대화하고 독자의 감정적 동기를 다양하게 이끌어내었다. 이처럼 예술가적 의지와 새로운 시각을 담은 패션 사진들은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고프만의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유형과의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 4.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

##### 1) 알드리지

알드리지는 영국 기반의 패션 사진작가로 『W』, 『Vogue』, 『Harpers Bazaar』, 『GQ』, 『Numero』, 『The New York Times Magazine』 등 다양한 잡지에 패션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여성들로 가득 차 있으며, 완벽한 여성의 외적 모습과 무표정한 표정의 표현으로 가득 찬 사진들이 주를 이루며, 이를 통해 그 속의 여인들의 내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작가이다.<sup>33)</sup> 그는 환상적이며 테크니컬한 색감을 사용함에 따라 주인공이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음을 재현한다. 그는 리플렉스 뉴 아트 갤러리(Reflex New Art Gallery)에서 「Acid Candy」, 「The Cabinet」을 출판하였으며, 런던 소머셋 하우스(Somerset house)를 비롯하여 각국에서 다수의 전시회가 열렸으며, 영국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National Portrait Gallery)와 V&A, 뉴욕 국제사진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y)에서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

고 있을 정도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패션 사진작가이다.

##### 2) 성장 배경 및 표현 특성

알드리지(2014)<sup>34)</sup>는 『SI Style』과의 인터뷰에서 패션 사진 촬영에 있어 ‘여성과 색채’ 표현에 가장 집중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의 인터뷰에서 컬러란 잠재의식 수준으로부터 작용하는 추상적인 언어로, 불확실한 현대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어두운 일면, 절망적인 혹은 공허한 여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 자신은 패션 세계의 요구에 따르는 제한적인 사진작가가 아니며, 영화 필름 제작자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진작가라고 밝혔다.

알드리지 작품 속 여성과 색채는 작가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과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 이는 그의 성장 배경과의 연관성을 가진다. 일러스트레이터인 그의 아버지 알랜 알드리지(Alan Aldridge)는 사이키델릭 레코드 커버를 디자인 한 디자이너로 유명하다. 알드리지는 팝아트를 연상케 하는 많은 예술작품과 오렌지색 벽과 같은 색채감각이 뚜렷한 집, 환경에서 자랐다. 더불어 혼자 아이들을 부양하고 가사노동 부담을 져야 했던 그의 어머니와의 긍정적이지 못했던 관계는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35)</sup> 따라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색상의 영향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성장 배경 아래 알드리지의 여성과 색채에 관한 깊은 관심은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알드리지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처받은 여성(damaged women)을 시각화 하여 보여주는 작품이 많이 다루었으며, 하이패션과 럭셔리 아이টে็ม으로 작업하는 동안,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즉, 알드리지는 현대사회의 여성과 관련

된 이슈에 관한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루어 내고 있는 사진작가이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 1) 장소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는 부엌, 침실과 같은 가사노동을 연상하게 하는 배경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청소, 요리,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직접적 행위를 연출하여 고정관념적 성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다수 차용하고 있었다. <그림 15>는 2011년 『Vogue』 이탈리아에 수록된 에디토리얼 『Home Chic』으로 『Home Work』 에디토리얼의 연장선 시리즈이다. 본 시리즈는 가사노동 패션을 모티프로 그녀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시킨 거짓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sup>36)</sup> 여성 모델은 화면에 중심에 배치되고, 가사노동을 연상시키는 부엌이 주된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싱크대가 메인 소품 장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모델은 그릇을 정리한다든지, 설거지나 청소를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성 모델은 백색에 가까운 피부 및 입술, 금발로 표현되어 창백하게 연출되었고, 내면을 알 수 없는 공허한 표

정을 짓고 있다. 이와 대비되는 배경과 소품의 강렬한 원색의 사용이 눈에 띄며 대체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높은 다양한 색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표준색 색채분석(KSCA) 프로그램 분석 결과 주조색은 인공조명으로 비추어진 부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이를 제외한 색을 살펴보면 그린과 레드가 주조를 띄고 있으며 이는 강렬한 보색대비를 일으킨다. 명도와 채도부분을 살펴보면 피부색이 고명도 저채도를 띠며 옷이나 소품에서 보이는 주조색 들은 고채도 고명도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도출되었다. 이처럼 여성 모델은 소품 및 배경과 비교되어 시각적으로 더욱 창백한 이미지를 표출하여 여성의 공허한 내면을 표정으로 한층 부각시킨다.

#### 2) 움직임

19세기를 지나면서 미적 이상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중산계급을 통해 확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날씬함이라는 미적 이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sup>37)</sup> 이에 여성들은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고 전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게 외모를 가꾸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림 16>은 2013년 『Vogue』 이탈리아에 수록된 『Mannequin Thriller』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비현실적 미적 이상에 갇혀버린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본 시리즈의 대담하고 도발적인 스토리를 통해 완벽한 인공화적 미에 대한 우리 사회집단의 의식을 다량의 마네킹과 함께 배치하여 혼합하여 보여주고자 의도하였다.<sup>38)</sup> 본 시리즈의 여성 모델은 마네킹처럼



<그림 15> 『Home chic』, 2011

(출처: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PN=9>)



<그림 16> 『Mannequin Thrill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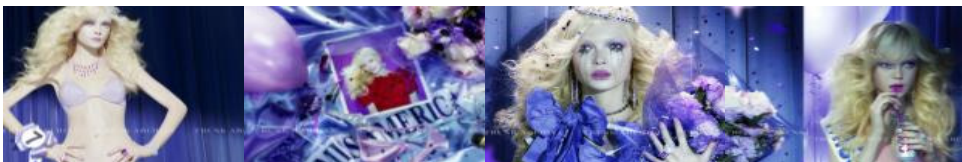
(출처: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MKQE6&SMLS=1&RW=1920&RH=979&PN=4#/SearchResult&VBID=2POUBH3AMKQE6&SMLS=1&RW=1920&RH=979&PN=5>)

표현되거나 실제 마네킹과 함께 배치되어, 여성들의 비현실적이고 인공적인 미적 이상에 대한 맹목성이 표현되고 있다. 즉, 현대 여성들의 맹목적이고 자의식 없이 형성된 미적 환상이나 이에 대한 숭배에 관한 비판적 시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네킹은 인간이 생산한 생명이 없는 가공물로, 실제 모델의 표정에서도 생동감 없는 공허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속 여성 모델을 플라스틱 비닐 소품으로 포장하여 인공적인 느낌을 확장하며, 이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고프만이 제시한 것처럼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성 의식의 제약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다. 사회적 위계와 남녀의 분리가 많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여성다움에 대한 간혀버린 여성의 시각을 스토리로 풀어낸 것이다. 색채 사용에 있어서는 에시드 그린(acid green) 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모델은 금발, 부풀려진 레드 헤어 등으로 연출되어 인공적인 느낌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초현실적 감각의 고평도 교체도의 레드, 그린, 옐로우의 색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비현실적인 감각을 통한 이중적인

표현이 두드러져 나타났다.

### 3) 대상화

<그림 17>은 미인대회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응시의 대상으로 상품화되고 대상화된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미인대회는 여성을 미적 대상으로 여성을 상품화하는 대회이자 대상화하는 등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 보이는 여성은 백색에 가까운 피부와 긴 웨이브 금발 머리이며, 더불어 날씬한 몸매를 그대로 도드라지게 하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다. 현대 미인대회의 수영복 심사를 통한 몸매의 치수화는 물론 보여주기 위한 대상으로 여성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꽃다발과 왕관을 착용하고 입상을 한 여성 모델의 메이크업에서 눈물로 번져 버린 눈 화장과 무표정한 표정은 행복하고 기쁜 현장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내면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색채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다른 시리즈와 비교하여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주조색으로 블루, 바이올렛 계열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평도 저채도의 피부톤과 저명도 교체도의 배경은 극단적인 명도



<그림 17> 『Miss America』, 2010

(출처: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PN=15>)



<그림 18> 『Lookable Legs』, 2002

(출처: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PN=39>)

대비를 이룬다. 더불어 톤 다운된 컬러의 사용들은 여성의 외적 아름다움 보다는 어두운 내면의 모습을 부각시켜 대상화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이중적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 4) 몸의 표상

<그림 18>은 2002년에 『Vogue』 이탈리아에 수록된 에디토리얼로 성적 대상으로 여성 고정관념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 모델의 하체를 중심으로 촬영되었으며, 페티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검정색 가터벨트 또는 스타킹, 검정색 하이힐을 착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단순히 가터벨트나 여성의 신체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성적 대상의 여성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시리즈의 화면 구성에 있어 사용된 소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침대 및 소파와 같은 소품과의 결합적 표현이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핑크색으로 연출된 침대, 강렬한 원색 계열의 레드, 옐로우의 소파와 커튼, 오렌지색의 소파 등이 여성의 다리와 함께 연출되어 그 의미를 부각시킨다. 또한 인체를 소품을 통해 분리하고 감추어 버리고,

그 형태를 왜곡시킴과 동시에 과장되어 보는 이에게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비록 모델의 다리는 인공적으로 표현되었지만 미의식의 산물이자 페티시를 연상시키는 검정색 가터벨트와 하이힐을 착용하여 성적 대상으로 여성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본 시리즈의 색채 분석 결과, 주조색은 배경의 밝은 그린색, 레드, 핑크로 구성되어 있고, 중명도의 레드는 고채도로 연출되었다. 이는 여성 모델의 피부와 원색 대비를 일으키고, 면적간의 강렬한 색채 대비는 시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 5) 종속의 의례화

<그림 19>는 2008년에 『Vogue』 이탈리아에 수록된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으로, 종속의 의례화 유형과 같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위치에 위치하거나, 소파나 침대, 바닥에 기대거나 누워있는 포즈를 포함하여 비교적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본 시리즈는 영화 씬(scenes)과 같이 표현하고, 그 속의 여성의 몸은 완벽하지만 비현실적인 추상화같이 표현함으로써 실제와 분리되어 보이도록 의도 되었다.<sup>39)</sup> 본 시리즈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있거나, 자동차 안에 힘없이



<그림 19> 『A Dazzling Beauty』, 2008

(출처: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SearchResult&VBID=2POUBH3ARJSUK&SMLS=1&RW=1920&RH=850&PN=22>)

않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체로 표현되었다. 남성 모델의 출현은 술을 권하는 남성의 팔,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표현되어 여성을 종속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한 가지로 유형화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가 아닌, 의식적 종속화와 성적 대상으로 여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색채 분석 결과, 여성의 인체는 고명도 저채도의 백색에 가깝게 처리되어 매우 창백해 보인다. 메이크업은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과 붉은 입술로 강렬하게 표현되었지만, 무표정의 여성 모델의 표정에서 공허함이 느껴진다. 성적 이미지를 내포하는 음식들이 차려진 테이블이나, 여성 모델에게 술을 권하는 남성의 팔은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이자 종속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톤 다운된 저명도 중채도의 바이올렛을 중심으로 다양한 명도의 색채를 사용하되, 대체적으로 중채도, 저채도의 색감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몽환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는 알드리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처받은 여성의 공허함과 어두운 일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시각 장치로 색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 나타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비판적 재현

알드리지 패션 사진은 상업성을 넘어 현대 사회의 여성, 일상의 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미지는 비록 연출된 허구이지만,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정관념적 여성의 단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의미화 한다. 사진 속 인물과 인체 표현, 의상뿐만 아니라 배경과 소품을 세심하게 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전달한다. 알드리지 작품의 여성들은 단순히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그의 시각을 통해 인공적이고 공허한 존재로 표현하여 내재적 의미를 표출 한다. 여성이 보이는 환경 즉, 배경과 소품은 여성을 정형화

된 성역할 또는 응시의 대상, 맹목적 미적환상을 지닌 간혀버린 여성과 같은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대변하지만, 그들의 모습, 인체 표현, 시선, 메이크업과 같은 요소의 이중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공허한 내면적 측면을 드러내는 방식의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에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이중적 표현의 대표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서 여성은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재현함과 동시에 공허하고 인공적인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작가의 자의식적인 인공성을 여성의 표정과 메이크업을 통해 연출하여 독자에게 불편한 느낌을 전달하고, 배경과 소품 장치 등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 주목할 점은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 속 여성은 공통적으로 비현실적으로 이상화된 모습을 띤다. 금발머리, 하얀 피부, 진한 메이크업, 날씬한 몸매로 소위 바비 인형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 시대의 여성 독자로 하여금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모습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지만,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극단적인 무표정, 창백할 정도의 하얀 피부, 딱딱하고 생동감 없는 인체 표현을 통해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드러낸다.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여성 이미지, 즉 이상적인 이미지와 실질적인 차이에 대해 시각을 유도하고, 일상의 모습에 녹여 실질적 이미지와의 차이를 풍자하고 있다. 즉, 여성의 모습은 잃어버린 자아와 삶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선처리는 사람의 심리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 행동양태로<sup>40)</sup>, 여성 모델의 시선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패션 사진 속 여성의 카메라를 응시하지 않고 초점 없는 시선처리나 생동감의 억제는, 눈을 통해 표현하는 감정을 배제시켜, 오히려 공허한 내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알드리지는 패션 사진 속 여성들의 상처받은 감정을 공허한 시선과 표정에 담아내

어 그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여,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이중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둘째,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 표현에서 주목할 점은 강렬하고 인공적인 빛과 색채의 사용을 통한 부조화의 연출이다. 장면과 장면의 관계된 색채 차이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 발생이 가능하다. 이처럼 여성이 중심인 현대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서 여성 이미지는 다양한 색채 표현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발생시키고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 할 수 있다.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여성 모델이 중심이 되는 화면 구성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강렬한 색채 표현이 눈에 띈다. 소위 고정관념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파스텔 톤을 여성의 색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컬러를 최대한 배제하고 강렬한 인공의 색, 현대적이지만 비현실적 감각의 내온컬러와 같은 고명도, 고채도의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더불어 주조색과 보조색의 강렬한 원색대비 혹은 보색대비, 면적대비를 혼합하여 압도적으로 강렬함을 표현하여 비현실적인 감각을 극대화하였다. 이처럼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냄에 있어 컬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이고 인공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표현에 있어, 색채는 연계적 측면에서 소외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시선을 압도하는 강렬함과 비현실적인 인공성을 동시에 극대화 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명의 사용에 있어서도 인공적으로 연출이 두드러진다. 실외 환경에서도 자연광을 배제한 인공조명 사용을 확대하여 갈등적인 구조 혹은 이미지와의 모순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의미를 복합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현실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색채와 인공조명이라는 허구를 이식하여, 실제와 인공성이 공존하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부조화하여 이중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 V. 결론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19세기의 정형화된 남성 다음 혹은 여성다음이라는 고정관념적 젠더 이미지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다원화된 젠더 이미지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페미니즘 담론에 의해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향상됨과 동시에 고착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가 다수 차용되던 패션 사진에서도 여성 이미지 재현에서 더 나아가 예술작품과 같은 비판적인 시각을 접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패션 사진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패션 사진작가 알드리지는 본 맥락과 함께 하는 대표적인 패션 사진작가로 여성과 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인공성과 비현실성을 결합하여 표현하여 여성의 내면적 공허함을 드러내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재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패션 사진 속에 표현된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의 재현 행태를 파악하고, 알드리지 패션 사진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의 비판적 재현 특성을 도출하였다. 알드리지는 미인대회, 가사노동과 같은 주제와 콘셉트를 비롯하여 페티시즘을 연상하게 하는 소품 사용 등을 통해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었지만, 패션 사진 속 여성과 색채의 이중적 표현을 통해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알드리지가 창조해 내고 있는 여성들은 단순히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공허한 표정과 창백한 피부 표현, 인공적인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 재현에 있어서 작가의 자의식적인 인공성을 여성 모델을 통해 연출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한 느낌을 전달하고, 환경, 소품 등으로 그 의미를 부각 시켰



다. 또한, 강렬한 색상대비와 명도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초현실주의적인 레드, 옐로우, 그린 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강렬하고 인공적인 빛과 색채의 사용은 고정관념적 이미지와의 부조화 성을 극대화 하였다. 즉, 현실성 있는 스토리텔링에 색채와 인공조명이라는 허구를 혼합하여 실재와 인공성이 공존하는 비현실적인 현실을 표현하고 있었다.

알드리지의 패션 사진이 대중에게 주목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 의해 비현실적으로 정형화된, 혹은 부추겨지는 억압된 여성 이미지의 내면에 감춰진 실재를 파악하고 표현하려는 근본적인 시도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현대 패션 사진은 실재 대상을 재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현된 상황에 의해 재구성된 새로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알드리지가 가지는 현대사회 여성의 어두운 일면과 공허함에 대한 관심만큼, 그의 관점이 표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의 변화를 독려하였다. 이처럼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정관념적 여성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패션업계 또한 새롭게 수용하고, 폭넓은 시각으로 새롭게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남경태 (2004). 한국 TV광고에 나타나는 젠더표상, 한국광고홍보학보, 6(2), pp.7-40.
- 백선기, 박지아 (2009). 광고의 여성성 표출과 이데올로기, 한국광고홍보학보, 11(1), pp.96-140.
- 최경희 (2008). 2000년 이후 한국 남녀 패션 잡지에 표현된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6(1), pp.1-21.
- Goffman, E. (1979). Gender Advertisement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pp.1-84.
- Kang, M. E. (1997). The portrayal of women's images in magazine advertisements: Goffman's gender analysis revisited, Sex Roles, 37(11/12), pp.979-997.
- Lindner, K. (2004). Images of women in general interest and fashion magazine advertisements from 1955 to 2002, Sex Roles, 51(7/8), pp.409-416.
- 위의 책, p.107.
- 이선재, 고영림 (2004). 패션사진: 문화와 욕망을 읽는다,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p.21.
- Gatti, P. (2013. 7. 9). All around Miles Aldridge, Vogue Italia online, 자료검색일 2015. 10. 20. <http://www.vogue.it/en/people-are-talking-about/vogue-arts/2013/07/miles-aldridge-exhibition-somerset-house-brancolini-grimaldi>
- Miles Aldridge (2010. 11. 19). Vogue Italia online, 자료검색일 2016. 2. 12. <http://www.vogue.it/en/people-are-talking-about/focus-on/2010/11/miles-aldridge>
- Kang, M. E. 앞의 책, pp.979-996.
- Lindner, K. 앞의 책, pp.409-416.
- Trunk Achieve(검색어: Miles Aldridge), 자료검색일 2015. 9. 10. <http://www.trunkarchive.com/C.aspx?VP3=SearchResult&VBID=2POUBH3AMKQE6&SMLS=1&RW=1920&RH=979>
- 정성근 (1995). 패션사진이론, 서울: 학문사, pp.8-20.
- 이채영, 하지수 (2014). 2000년 이후 보그 이탈리아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에 나타난 광고이미지, 복식문화연구, 22(3), p.95.
- 이경아, 금기숙 (2011).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스테레오타입 여성성, 복식문화연구, 19(2), p.432.
- Anderson, L. M. (1989). 성의 사회화, 이동원 옮김 (1993). 서울: 이화문고, pp.8-55.
- 윤지영 (2009). Richard Avedon과 Cindy Sherman 사진에 표현된 여성과 복식에 대한 도상학적 해석, 한국 의류학회지, 33(1), p.115.
- 위의 책, p.116.
- Eva, R. (2012. 5. 12). Cindy Sherman,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자료검색일 2015. 9. 10. <http://he.reelsewhere.com/see/cindy-sherman>
- 심정은 (2005). 현대조각에 있어서 여성성의 해체: 마리솔과 부르주아의 작품에 관한 응시론과 신화해석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96.
- 위의 책, p.199.
- Ledwich, J. (2016). Jessica Ledwich, Jessica Ledwich official website, 자료검색일 2015. 9. 20 <http://www.jessicaledwich.com/about.html>
- Bahadur, N. (2014. 4. 3). 'Monstrous Feminine' Photos remind us that beauty standards are more than unnatural, The Huffington Post online, 자료검색일 2015. 7. 30.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4/03/jessica-ledwich-monstrous-feminine\\_n\\_5079251.html](http://www.huffingtonpost.com/2014/04/03/jessica-ledwich-monstrous-feminine_n_5079251.html)
- Burgoyne, P. (2002). Sex and shopping, Creative Review, 22(3), pp.33-37.
- Shinkle, E. (2008). Fashion as Photograph, London; I.B Tauris, pp.1-2.

- 27) 백수진, 박희정, 간호섭 (2014). 마리오 테스티노의 패션광고사진에 나타난 색슈얼리티의 유형,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2), p.76.
- 28) Jouhar, A. (2013. 9. 19). Changing Fashion: The Miles Aldridge interview, Part Two, Image source online, 자료검색일 2016. 2. 12. <http://www.imagesource.com/blog/changing-fashion-miles-aldrige-interview-part-2>
- 29) 범서희, 임은혁 (2015). 패션사진에 나타난 오마주 (homage) 표현특성: 팀 위커의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5(4), p.69.
- 30) Goldman, R. (1949). 광고에서 사회를 읽는다, 박주하, 신태섭 옮김 (2006).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pp.5-22.
- 31) Goffman, E. 앞의 책, pp.1-84.
- 32) Anderson, L. M. 앞의 책, pp.8-15.
- 33) O'Brien, G. (2008). Acid Candy, Amsterdam: Reflex Amsterdam, p.12.
- 34) Miles Aldridge: Interview with Nina Huber for SI Style (2014. 5. 7). SI Style on Youtube, 자료검색일 2015. 8. 10. <https://www.youtube.com/watch?v=JCsVTpCFW6s>
- 35) Garratt, S. (2013. 5. 11). Miles Aldridge on his disconnected subjects, Fashion Telegraph online, 자료검색일 2015. 7. 5. <http://fashion.telegraph.co.uk/article/TMG10048858/Miles-Aldridge-on-his-disconnected-subjects.html>
- 36) Chromatography of sullen housewife: Home Chic by Miles Aldridge in Vogue Italia October 2011 (2011. 10. 13). Edelscope online, 자료검색일 2016. 2. 12. <http://edelscope.com/2011/10/13/chromatography-of-sullen-housewife-home-chic-by-miles-aldrige-in-vogue-italia-october-2011/>
- 37)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색슈얼리티 강의, 서울: 도서출판 동녘, pp.24-40.
- 38) Kinga Rajzak in Killer 'Mannequin Thriller' by Miles Aldridge for Vogue Italia (2013. 3. 6). Fashion Cow online, 자료검색일 2015. 9. 10. <http://fashioncow.com/2013/03/kinga-rajkak-in-killer-mannequin-thriller-by-miles-aldrige-for-vogue-italia>
- 39) Lécailier, S. (2010. 1. 19). 'A Dazzling beauty' by Miles Aldridge, Palais Musee de La mode online, 자료검색일 2016. 2. 12. <http://palaisgalliera.paris.fr/en/work/dazzling-beauty-1-miles-aldrige#sthash.rLeLxcwu.dpuf>
- 40) 남경태. 앞의 책, pp.7-40.

# Critical Representation of Stereotyped Female Image

## - Centered on Fashion Photographs by Miles Aldridge -

Lee, Chai Young · Shin, Hye Young<sup>+</sup>

Ph.D. candidate,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sup>\*</sup>

### Abstract

In the entire modern society, stereotyped gender images of the 19th century's standardized masculinity and femininity are being represented by various media. However, since the late 20th century when multi-gender images were settled in a society and female role and status were improved, there have been many various attempts to escape from a fixed image. In fashion photos that borrowed a lot of stereotyped female images, this paper identified quite a few cases of fashion photos that embraced a critical perspective or expressed female images through reinterpretation in many ways. So, this study identified representation manners of stereotyped female images and derived characteristics of the critical representation expressed in fashion photos by Miles Aldridge. Including themes of a beauty pageant or domestic labor, Aldridge represents stereotyped female images using props suggestive of fetishism but shows a critical viewpoint by dual expression of women and colors. Women created by Aldridge are represented as a void expression, pale skin and an artificial image rather than convey simply stereotyped images. As such, the artist conveys an uncomfortable and distorted feeling by presenting his self-conscious artificiality through female models, emphasizing its meaning by contexts and props. Besides, there are many cases to use intense color/brightness contrasts, employing surrealistic red, yellow and green as dominant colors. Utilization of such strong and artificial light and color maximizes discord with stereotyped images. In other words, it is expression of unrealistic reality that substance and artificiality coexist through transplanting a fiction of color and artificial lighting on the realistic storytelling.

Keyword : stereotype, female image, Miles Aldridge, fashion photographs, critical representation